

* 박동하수필집 *

구름에
가리운
새별

연변인민출판사

박동하수필집

구름에 가리운 새벽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태학

책임교정: 김홍화

삼 화: 최 강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被云遮蔽的星星 / 朴东河著 .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5 . 12

ISBN 7-80698-592-1

I . 被 . . . II . 朴 . . . III . 儿童文学 - 散文集 -
中国 - 当代 - 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 I287 . 4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5) 第147155号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 363 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省图们市荣华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 5.375印张 : 1/32开本 字数: 15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592-1 / I·75 (民文)

版次: 2005年 12月 第1版 2005年 12月 第1次印刷

印数: 1—500 册 定价: 14.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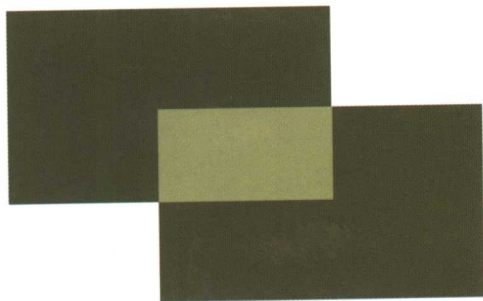
박동하 략력:

1941년 왕청현 출생.

연변대학 조문학부 졸업.

연변요령세멘트공장 자녀중학교에서

선후로 교도주임, 당지부서기, 교장 력임.



작자의 말

퇴직하고보니 지난날 그토록 고대하던 《한가한 여유시간》에 대한 소망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시간이 너무 느리고 갑갑하게 흘러가서 짜증이 난다.

인생이 물보라 하나 뿜겨보지 못하고 너무 편하고 습습하게 흘러가는게 아깝다. 그럼 뭘 할가? 그러다가 문득 명색이 대학문과를 전공했음에도 문학작품 하나 써보지 못한 아쉬움이 또 고개를 쳐들자 이번에는 때늦은줄 알면서도 용단을 내렸다.

(웁다. 글을 쓰자.)

처음에는 그토록 어렵고 막연하기만 했던 글쓰기가 이처럼 바쁜 가운데서 즐거우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다.

무심중에 지나쳐버렸던 수많은 생활세절들이 노오란 콩알로 변하여 나의 마음속 시루로 달려와 껌질을

벗고 콩나물로 키워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비록 벌레먹고 여물지 못한 콩알들을 주어내기는 하였으나 시루가 적고 물주는것이 서툴러서 나의 《작품》은 아마도 퍼렇게 바람맞은 콩나물 같은것이 태반일것이다.

문학적기질이거나 철학적깊이에 닿지 못한 글들이 독자들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까 두렵다. 나의 미흡한 글들을 읽는분들이 사랑으로 메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날 어설픈 문학초보자한테 분에 넘치는 격려와 용기를 주신 박홍률, 리명, 김세형, 김을석 선생님께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작품집 출간을 주선해주신 연변인민출판사에 경의를 드린다.

또한 늘 마음이 편하게 도와주는 안해와 자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박동하

2005. 11. 25

차 례

1. 느낌의 계절

련꽃	3
잔디	6
할미꽃의 두얼굴	8
가을의 소리	11
해운대에서	14
봄을 보내며	20

2. 친구다운 친구

동창모임	25
친구사이의 왕래	30
취미	33
퇴색해지는 효의식	36
전화번호수첩	39
상스러운 말의 후과	43

3. 구름에 가리운 새별

이름을 불러주자	49
자신감	52
수박 한조각	55
깜짝쇼는 그만두라	59
생일선물	62
《나이》의 서렬화에 대하여	66
손자와 함께	70
꼴찌에게 희망을	74
구름에 가리운 새별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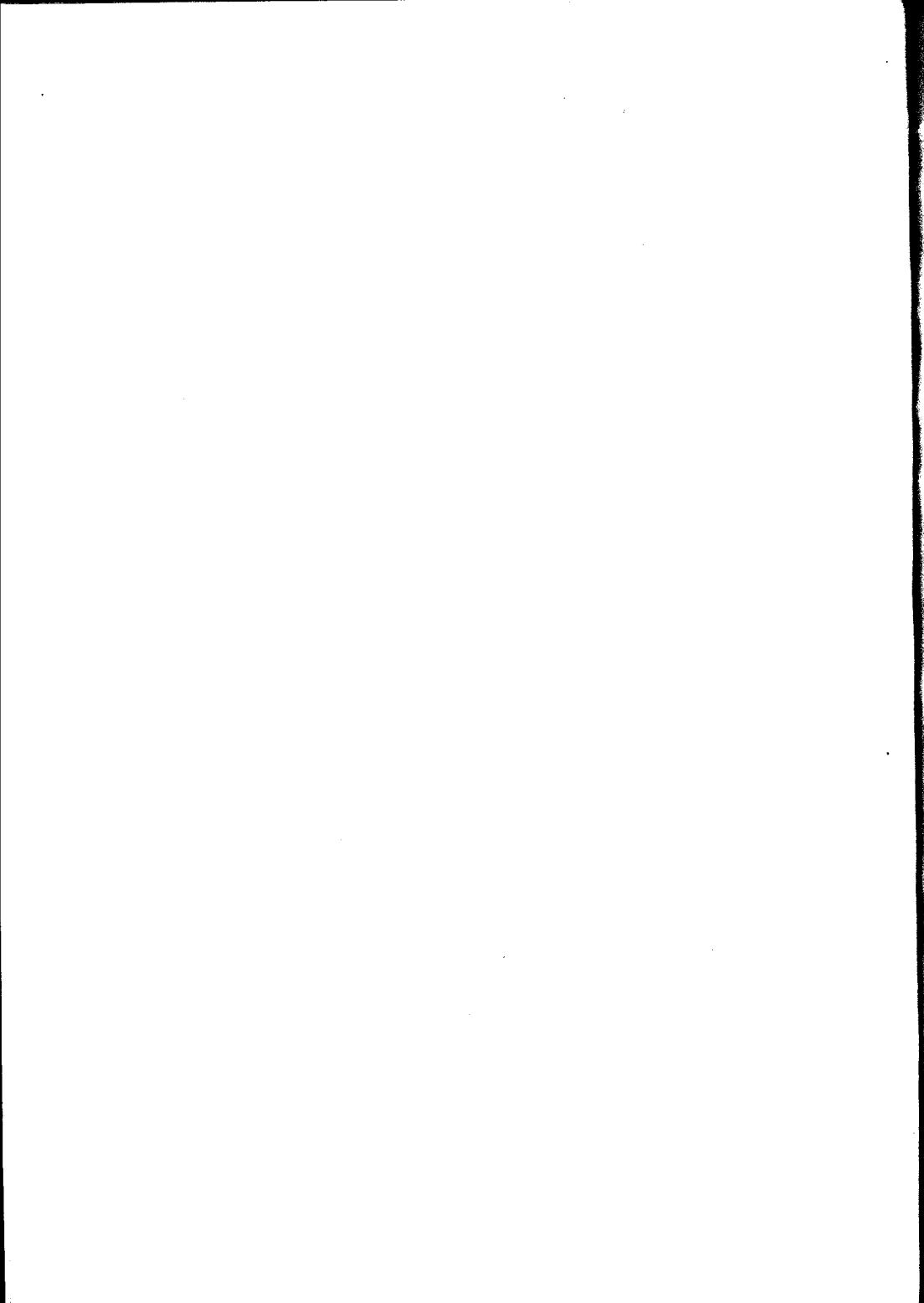
4.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구석	85
뒤모습	88
무턱대고 달리다간	92
나만은...	95
말	100
눈물	104
상처자국	107
다이아몬드반지	111
봄나물	114

5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달력	119
가정이란	123
코 고는 남편	126
부모의 존재	128
어머님과 사랑	132
설날	135
공주병의 온상지	138
부모의 책임	141
부부사이의 오미자맛	145
어머님의 로후	149
조상의 고향을 찾아서	153

1. 느낌의 계절



런 꽃



일정이 급박했다. 래일아침차로 북경을 떠나야 하므로 오늘을 놓치면 이화원구경을 못하고말것이다. 요행왔다가 소문난 명승지도 못보고 가서야 어디 말이 되는가. 나는 구질구질 내리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화원으로 뻗은 길에 무작정 들어섰다.

산발타기가 불편하여 나는 먼저 동쪽편 십칠공교에서 이화원 만수산 전경을 대충 살펴보았다. 다음 발가는

대로 가다가 어느 후미진 곳에 있는 커다란련못가에 와서 끝내 발걸음을 멈추고말았다.

우산을 쓰고 내리는 비속에서 련못을 바라보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정취는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길이 없으리라!

저 멀리 수면에서는 수억만개의 물방울들이 기포를 터치며 죽가마 끓듯이 튀여오른다. 크고작은 련잎들은 수많은 푸른 소래라도 벌려놓은듯 쏟아지는 비방울을 받느라 여념이 없다. 련잎들은 자신이 감당할수 있는 량만큼 비물을 담고있다가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겹친쪽 잎새가 벌어지면서 좌르륵 쏟아버리곤 한다. 나는 스스로 절제할줄 아는 련잎들에게 경의가 갔다. 만약 련잎이 욕심대로 비물을 받아들인다면 마침내 잎이 찢어지거나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줄기가 꺾이게 될게 아닌가!

불현듯 세찬 광풍이 불어치는 바람에 나는 몸이 휘청거렸다. 뒤미처 비릿하고 고리타분한 냄새가 코구멍을 자극했다. 내가 크게 눈을 뜨고 살펴보니 그것은 련잎이 자라고있는 더러운 물밭이었다. 배수가 잘되지 못하는 련못물은 미생물이 번성하여 검푸른 색으로 썩어있었다. 하지만 이런 흙탕물속에서도 피여나는 련꽃은 오히려 싱싱하고도 도고한 아름다움을 뽐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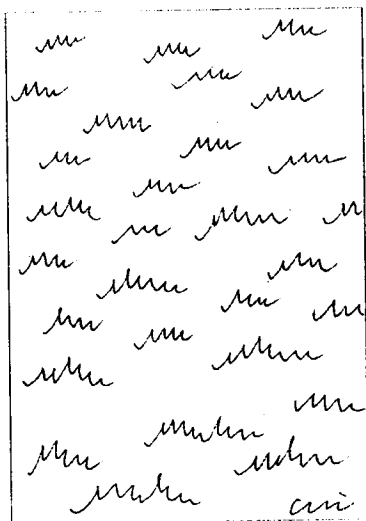
불교에서는 인간세상을 허위와 위선, 악과 질투로 가득 찬 어지러운 고해(苦海)로 묘사하고있다. 그리고 부처님을 깨끗하고 신성하다고 여기고 앉아도 련꽃잎으로 만든 축대속에 정좌하고있다고 믿는다. 종교적인 편

견은 버리고라도 우리는 어지러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련꽃에서 사람답게 사는 리치를
배워야 할것이다.

비는 점점 더 거세차게 내린다. 광풍을 동반한 련못
의 물은 사정없이 련꽃과 잎사귀를 뒤흔들어놓는다. 그
러나 련못밑 땅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자
양분을 공급해주는 굵고 긴 줄기는 끈질기기가 비할바
없다. 또 하늘을 바라고 피여난 련꽃과 둥그런 련잎들을
끌어당겨 그들이 동요없이 제자리를 지키도록 하게 한
다. 련꽃의 화사한 아름다움은 뿌리와 줄기의 흔들림없
는 약속에서 비롯되지 않는가!

아, 그러고보면 련꽃은 정말 평범하지 않은 꽃이다.
욕심은 있되 도를 넘지 않은 련잎, 흙탕물에 살면서도
오물 한점 묻지 않는 꽃잎, 험악한 환경속에서도 결속력
을 지킬줄 아는 뿌리... 우리는 모름지기 련꽃의 고귀한
품성을 자기것으로 만들줄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

잔 디



내가 즐겨 찾아가는 곳은 주위에 자작나무와 잔솔
나무들이 뿔뿔이 들어서있는 잔디밭이다.

싱싱한 잔디밭을 보면 금시 빛나는 젊음과 활기찬
생명이 느껴진다.

잔디는 매마른 땅에서도 뿌리와 뿌리를 맞대고 어
깨를 곁고서 자라는 강인한 식물이다. 수분이 적은 척
박한 땅에서 살아남자면 혼자의 힘으로는 안된다는걸